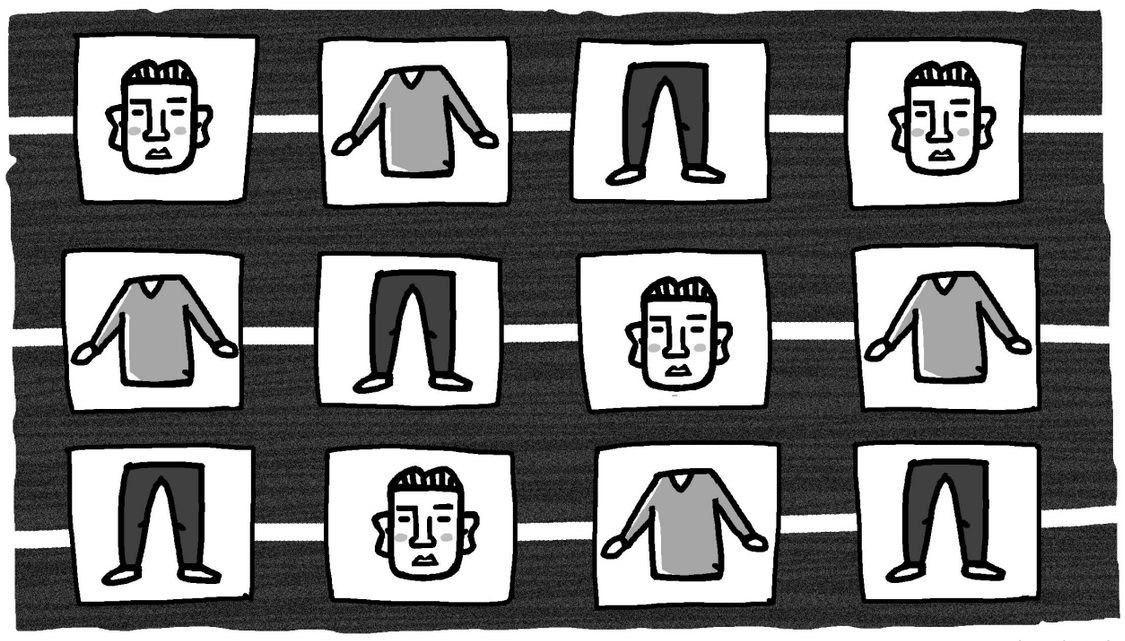
사는 자체가 다 바로 근본에서 하는 거라고 믿고 놓아야!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 어떻게 하면 순간 자기가 자기를 알게 될까 하는 생각에서 "모든 걸 놔라. 놔라." 이렇습니다. 놓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납니다. 사는 자체가 다 바로 그놈이 하는 거라고 믿고 놓아야 합니다. 만약 그놈임을 믿지 않고 그놈한테 다 맡겨 놓질 않는다면 그놈은 절대 나오질 않아. 회사에서도 어느 믿을 만한 직원한테다 딱 맡기면 도둑질도 못해, 맡겼기 때문에. 그리고 더 잘해요. 그런데 맡기질 않으면은 그게 참 나오려고도 안 해요. 왜? 막아져 있으니까. 제 잘났다고 턱하니 자기가 위로 올라앉았으니, 참자기는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참자기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한테 머리 숙여 숭배해야 해요. 자기 조상이니까. 자기 아비라고. 겸손하게 보필하면서 자기는 믿어야 된다 이거야, 마음적으로. 그래서 믿어서 그것이 완전히 둘이 아니었을 때에, 아비가 자식이고 자식이 아비이고 말이야.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 아비면 그냥 아비지, 왜 아비이자 자식이고 자식이자 아비라고 그러느냐? 불이법(不二法)이 그러하다는 얘깁니다.

그건 왜? 그렇지 않으면 연속해서 길이 될 수가 없거든. 즉 예를 들어서 높은 일도 있고 낮은 일도 있고 아주 하(下)의 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고 자식이 없다면 이건 뭐, 진리라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나라의 일도 그렇고, 모든 게 삼위일체로써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이러는 법은, 즉 말하자면 아버지가 일을 할 때는 아들이 아버지로 돼 주고, 아들이 일할 때는 아버지가 아들로 하나가 돼 주고,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될지언정 결국 하나다 이겁니다. 뱀이 일할 때는 스님도 뱀이 돼 버리고 또 스님이 일할 땐 뱀이 바로 스님이 돼 버리고, 사자가 스님이 돼 버리고 스님이 사자가 돼 버리고, 코끼리가 사람이 돼 버리고 사람이 코끼리가 돼 버리고, 그게 마음은 하난데 마음이 수천수만 가지로 생각을 낼 수 있으니 그 모습조차도 바뀌지더라 이런 겁니다.


그림 · 최주현

우리가 수없이 거듭거듭 거쳐 나오면서 모습을 바꿔 가지고 나온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계발하고 연구하고 그러는 자연의 섭리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스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연의 이 토대가 바로 어디에서부터 온 겁니까? 모두들 지수화풍이 허무하다고 그러지만, 지금 지수화풍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지수화풍이 없으면은 지금 우린 꼼짝도, 아니, 생겨나지도 못했죠, 응.

지금 다른 혹성에도 이런 게 있죠. 우리 지구에도 그렇지만 법망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구에도 망사처럼 이렇게 큰 둘레로 돼 있는 법망이 있습니다. 그 법망으로 인해서 전체가 같이 이렇게 돌아가고, 바깥으로 표시가 돼 있는 것도 있다는 얘깁니다. 즉 말하자면 핏줄처럼 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어디로 해서 어떻게 나가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법망이 보이지 않는 데 법망이거든요. 조금이나마 바깥으로 표현된 것도 천체망원경으로 봤기 때문에 표현된 거지 육안으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그것을 바로 우리가 현세에 이렇게라도 볼 수 있게끔 나온 것이 어찌 과학이 아니겠느냐는 얘깁니다. 우리는 볼 수 없는 그 자체 속에서 분자에 의해서 생명이 되고, 그 생명에 의해서 진화가 되고, 이렇게 자꾸자꾸 나투면서 우리는 지금 한시도 머물러 있지 않고 빛을 발하면서 활발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끊임없이 돌고 있는데, 지금 이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걸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았지 그것이 지금 어디로 어떻게 돌고 있는지 그런 것은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몸뚱이 속의 생명들은 지금 내가 저기 갔는지 여기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알고 있나.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배 속의 오장육부 세포에서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다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묘법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내가 도둑질을 했어도 누가 알겠느냐 하겠지만 이 배 속의 생명들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죄 알고 있으니, 우주간 법계에서 다 이건 그냥 파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거 거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거짓을 하더라도 '거짓 아닌 거짓을 해라'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남을 위한 거짓이라면, 부모를 위한 거짓이라면, 자식을 위한 거짓이라면 거짓이 아닙니다. 그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더 이것을 잘 음미해 본다면 이 보이지 않는 데에 진출하는 이런 마음은 부처님 법의 경을 읽고 또 이론으로 알고 또 물리를 안다고 해서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제 아무리 잘 안다고 하더라도 한번 내가 집어 먹을 줄 모른다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한번 집어 먹을 줄 알고 남을 줄 줄 안다면, 자기 죽는 거, 이 옷 벗는 거를 그렇게 뭐, 대단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이 자리 저 자리를 육신으로 다니며 하려면 그게 얼마나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몇 안 되고, 칼이나 창이나 활이나 또는 대포를 가지고 해도 싸움이 됐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시대가 시대니만큼 사람도 많이 생겼을 뿐 아니라, 사람의 머리도 그만큼 깨었고, 그만큼 과학적으로 발달이 됐고, 문명으로나 모든 걸로 봐서는 지금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죠. 그런데 이 공부하는 사람은 한 술 더 떠서 공중에서 싸운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커버할 수 있고 앞장설 수 있는 대인이 되시라 이 겁니다. 이파리 하나 가지고 군사를 몇백 명이라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 이 소립니다.

그런데 뭐가 언짢고 귀찮을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너무나 인간살이를 어렵게만 생각해서 그런데, 고통을 아무리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 주인으로부터 나를 형성시켜서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 부와 자가 하나가 된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은 하나인데 마음 내는 거는 수억만 가지입니다. 수억만 가지가 한마음으로 들고, 한마음에서 수억만 가지가 난다 이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묘법이고 광대무변한 자신의 보배를 자신들이 가졌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수억만 명을 만들어서, 이 우주를 덮게끔 할 수도 있어. 지금 모습 없는 모습들이 각 혹성에서도 바라고 있으니까. 모습 있는 생명들도 많지만, 모습 없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헤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것이 다 친구라면, 무서울 게 뭐 있고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소도 사람을 처음 봐서 아무것도 모를 때 사람 마음을 거기 줬을 때에는 그 소가 '아하! 이 마음이 이러니까….' 하고 그냥 마음에 따라서 같이 알게 돼요. 전체를 아는 게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만. 그러기 때문에 길을 따라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위대하죠. 사람은 전체를 알고 있는데, 짐승은 부분적으로 자기가 생각해서 알고 있는 거 그것뿐이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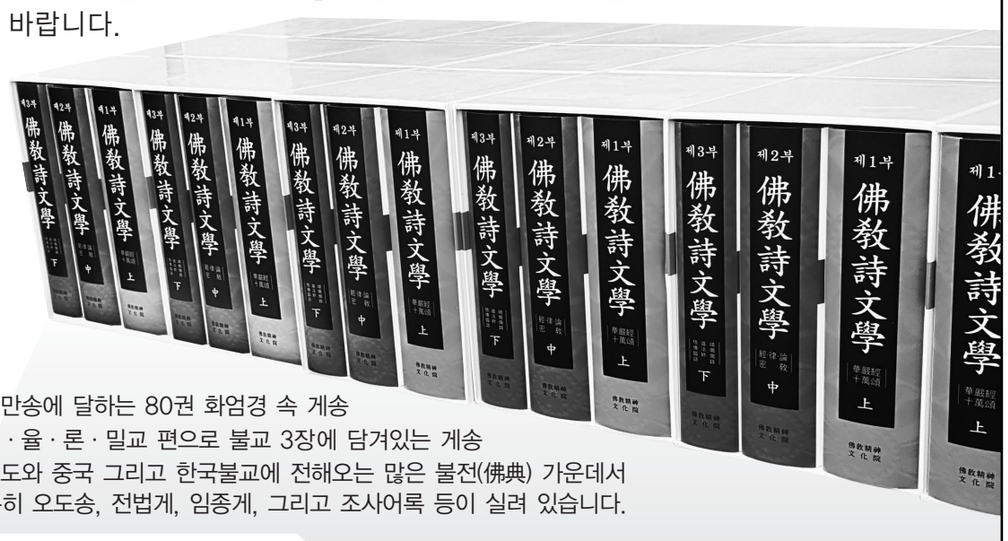
그러니 나라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 공산주의 나라가 독재로 다스려서 이익이 뭐 있느냐 하는 것도 있지마는 우리가 앞으로 계발을 한다면, 또 모든 에너지를 같이 이렇게 평등하게 만든다면, 어떤 문제라도 뛰어넘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3, 4년 전 얘기일 겁니다. 나는 중공이든지 소련이든지 어디든지, 민주화로 좀 이렇게 같이, 물을 좀 갖다 섞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앞으로도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섞지 않는다면 살기가 희박하다는 문제입니다. 전부 계발하기도 희박하고, 또 불국토를 가져오는 것도 희박하고, 또 앞으로 연구하는 데도 큰 절망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 생명체들이 잘 살 수도 없고요.

언젠가는 우리가 멸망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 마음이 너그럽지 못해서 생길지도 모른다. 그러니 마음이 너그러워야, 썰물 밀물이 같이 혼합을 해야 살 수 있는 기대를 품을 수 있고 또 지혜가 나오고 물리가 터지고, 불국토도 이룰 수 있는 거죠. 과학도 더 나가서 연

☞ A18면으로 계속

불교시문학(佛敎詩文學) 上 中 下 강의

활안스님의 『불교시문학 상 · 중 · 하』 출판을 계기로 불교시문학 강의를 계획하였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상권 : 십만송에 달하는 80권 화엄경 속 게송
■ 중권 : 경 · 율 · 론 · 밀교 편으로 불교 3장에 담겨있는 게송
■ 하권 : 인도와 중국 그리고 한국불교에 전해오는 많은 불전(佛典) 가운데서 특히 오도송, 전법게, 임종게, 그리고 조사어록 등이 실려 있습니다.

강의내용 및 시간

■ 상권 (월 1회) : 매월 4째 토요일 오후 2시 ~ 4시 (3월 24일 개강) / 화엄경 게송 강의
■ 중권 (주 1회) :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4시 (3월 5일 개강) / 아함경 ~
– 강사 : 활안 한정섭 스님
※ 불교시문학은 (사) 한국불교금강선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각권 정가 5만원)

(사) 한국불교금강선원 | 문의 02)969-2410. 969-4981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대학장,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 신 대 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 2018년 1월 15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18년 3월 7일 화요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신중작법, 상단불공의식
◇원서교부 : 2018년 1월 15일 부터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8년 3월 8일 목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내 마음이 아는 걸 우주법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 A17면에서 계속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이 원력이 아니라, 서로 둘이 아니게 교류를 맺게 하고 인연을 맺어 주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이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얘깁니다. 원력이 있다고 해서 어느 나라를 죽이고, 어느 나라를 살리고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자기 앉은 자리 딱 지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누구나가 자기네 집 지키지 않는 사람 여기에 한 분이나 계신 거 보셨습니까? 하루 종일 다니다가도 자기네 집으로 들어갑디다, 모두. 거기는 꼭 지키더군요. 어디 나가서 여관에 가 자도 내 집이 있다는 건 꼭 지키더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공부, 이러한 도리를 배우지 않으면은 절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식들을 낳고 키워도 그 애가 스스로 밝은 길을 걷도록 가르칠 때, 말로 하고 때리고 욕하고 그래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 전화통이 있고 그 애 전화통이 있는 이상, 내가 그 애 번호를 자식이라고 알고 있는 이상, 그거는 억만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둘이 아니기 때문에 길을 인도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 뿌리에다가 많은 에너지를 다 넣어도 넣은 사이가 없이 스스로서 밝아서 스스로서 길을 올바르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누가 일부러 그 손을 끌고, 욕을 하고 때리고 그래서 갑니까?

각본대로 여러분 사시죠? 여러분이 그 게임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창살 없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깐, 어쩔 수 없이 각본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각본대로 돼 있는 거를 벗어나려면은 그만한 고초가 없이 어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어! 이 절은 뭐 이상해." 그러죠? "뭘 놓으래? 사랑도 돈도 다 놓으면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미거한 소린 하지 마세요. 사랑도 돈도 다 그 속에 있는 건데 누가 하지 말라나요? 하되,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이 소립니다. 자기 게 아니라 자기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똑바로 그것을 잘 아신다면은 자기는 관리인으로서, 시봉자로서, 자기의 시봉자로서 올바르게 함으로써, 또는 시봉자는 주인에게 "너는 차가 고장 났으면 올바로 고쳐서 끌고 다녀라!" 이렇게 하라 이 소립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운전수가 없어도 안 되고, 차가 없어도 안 되고 기름이 없어도 안 돼요. 하나라도 없어선 안 돼. 생명이 없어도 안 되고, 분별이 없어도 안 되고, 마음 내는 게 없어도 안 돼. 또 마음 내는 게 없어도 안 되지만, 육신이 없어도 안 돼. 그러니 세 개 중에 내가 높다고, 어떤 게 높다고 하겠습니까? 높은 게 하나도 없어. 통틀어서 그냥 일심(一心)이야. 일심이 들고 나는데, 삼세심(三世心)이 그냥 들고 나. 삼세심이 일심이요, 일심이 삼세심이라. 과거심(過去心)도 미래심(未來心)도 현재심(現在心)도 그냥 일심이야, 통틀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당장 시한에 닥치는 일들, 그냥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는 일들…. 어떻게 돼서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넘어갈 수 있었겠나. 박 대통령 당시에도 아슬아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됐는가. '그렇게 되려니까 그렇게 됐지.' 이러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니깐 그렇게 됐지.' 하는 겁니다, 모두가. 그것이 둘이 아닌 까닭에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거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거지마는,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도 내 자식이지마는 너무 남한테 해롭게 하고 그래서 열 번만 그렇게 끌려가 보세요. "그 새끼는 내 새끼 아냐. 가만 둬, 잡혀가거나 말거나." 이렇게 해 버립니다. 열 번을 타일렀는데도 열 번을 붙잡혀 간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문제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주어지는 건데,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주어지더라도 중심은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 집이 비면은 남한테 채여! 환경에 따라 가다 보면 그만 흔들리고 중심이 없고 집이 비게 돼요. 그럼 그 집에 남이 들어서서는 내 집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달마 대사가 "내가 잠시 어디 갔다 오니깐 내 집에 누가 들어왔더라. 그래서 나는 집이 없어서 비워 놓은 딴 집에 들어가서 털보가 됐다." 이런 말이 있죠? 그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한 가지 벌어졌으면, '어!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을 했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달마 대사가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달마 대사로 몸이 바뀌었습니까? 왜 바뀌었느냐 이겁니다. 달마 대사는 재주가 그만큼 없어서 바뀐 겁니까? 남의 집을 뺏을 줄 몰라서 뺏긴 겁니까? 그러면 그만큼 공부해 가지고도 집 뺏길 정도라면, 집을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다면 그건 달마 대사 자격이 없죠, 하기야. 그런데 말입니다, 그걸 가르치느라고 말씀을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들었으면 한번 음미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 마음의 도리로, 이렇게도 이끌고 저렇게도 이끌고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가난해서 아주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도 그 도리를 안다면 나물죽을 먹고도 껄껄 웃을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멋있는 겁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기반찬에 잘 먹고선 그냥 흐드러지게 좋아하는 것보다 참 얼마나 멋있는 줄 아십니까? 그 맛이란….

여러분이 여기 스님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먹이기 위해서 여기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좋고 좀 더 맛있는 거는 여러분과 같이 공양을 하고, 좀 더 후진 거는, 또 후진 것도 없는 사람한테는 사실 후진 게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나 감지덕지죠. 그래서 이것은 천차만별로 나눠 주죠. '스님네가 심부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미처 나는 몰랐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어렵구나! 이렇게 중노릇하기가 어려운 줄은 내가 애당초에 생각을 못했구나!' 그것도 내가 생각한 것 아니겠는가, 어렵다는 것도. 그러나 어렵다는 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를 생각하게 됐다. 왜? 내가 그건 어렵다고 생각할 게 없어. 나 하는 대로 그냥 꾸준히 그냥 뚜벅뚜벅 가면 되는 거니까, 저 물 흐르듯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마음이 아는 걸 우주법계에서 알고 있는데, 그게 무서워서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철칙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알든 모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게 괴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롭지 않게 살아라 하는 얘깁니다.

남이 두렵고 남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게 괴로움을 가져오는 거고,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때는 참, 부모도 없고 불쌍한 애들, 어떤 때는 등록금도 못 내고 그럴 때는 말이죠, 참 그런 거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주었다는 거 말해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남의 체면도 있지. 그럴 때 그냥 내주면서도, 그것은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마음 편안하려고 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내 마음 편안하자고 나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야 내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중노릇하기 참 어렵구나!' 하는 겁니다.

어떤 때에는 빚을 내서 시주를 한다고 가져온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도로 줄 때가 있죠. "야! 누가 빚 내 가지고 오랬어?" 그러고 주면서 "네가 괴로우면 내가 괴로워! 난 괴롭기 싫어. 이게 이자 늘어 가면 내가 죽겠어. 당신이 죽겠는 것보다 내가 죽겠어. 그러니까 난 이거 안되겠어. 갖다 갚아. 심부름 좀 해!" 이럽니다. 내 심부름 좀 하라고 그래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절에 와서 부처님을 친견 못하고, 없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지 그것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안 아픈 사람이나 어떤 스님네들은 "병 고치는 게 중인가?" 이러는 사람이 있고 "그건 이단이다." 그럽니다. 이단이 아니라 일단이라도 좋다 이거야. 그거는 당장 내가 아프고 내가 귀찮으니까 하는 거지, 내가 일단 되기 위해서, 정법 되기 위해서 이런 공부 한 게 아니다 이거야. 내가 아픔을 겪어 봤고, 내가 내 아픔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내가 부처 되기 위해서 이 공부 한 게 아니야.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야. 자연의 섭리야, 이건. 누가 뭐라면 어때요?

내가 겪어 보니까, 이렇게 살아 보니까 야, 참 아픈 것도 누가 대신 아파 주지 않고요, 똥이 안 나와도 대신 똥 눠 줄 사람도 없고요, 허허허, 참 피곤해도 누가 대신 피곤해 줄 사람도 없고, 누가 대신 울어 줄 사람 없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내 아픔처럼 아프고 불쌍하고, 정말 뼈아프게 아픈 때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방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이럽니다. 왜? 내가 아픈 거를 내가 빨리 어떻게 어떻게 낫게 하려고 말입니다. 아프기 때문입니다. 얘기 듣기만 하면 됐지 뭘 내가 더 말할 게 있습니까, 괴로운데. 그 사람은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모든 게 나 괴롭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빨리 나가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뭣이 좋아서 자꾸 얘기할 맛이 나겠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어떻게 하나.' 하고선 좀 잠시라도 이렇게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변소 안에 가서도, 어떤 사람은 무슨 부처가 변소 안에 있느냐고 그러더군요. 예전에 두루마기를 입고 변소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급하니까.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두루마기를 입고 어찌 변소 안에 들어갔느냐 이겁니다. 그때에 어린 마음에도, 지금처럼 나이나 먹었으면 그냥 픽 웃고 말았을 텐데, 그때는 그냥 입이 근지러워서, 허허허. 그러니깐 좀 모자랐죠. "아니, 우리가 변소 안에 드나드는데 부처가 변소 안에 없다고요?" 아, 요렇게 되받았지 뭡니까? 허허허. 그리고 그 스님한테도, 아유, 모자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도. 그때 몰라서 그랬죠. "당신에게는 반밖에는, 반절밖에는 못하겠소." 허허, 이랬거든요. 그 왜 그랬나? 그때는 너무 삐죽하고 빳빳하고 아주 눈에 불이 펄펄 날 때니까. 그때는 그렇게 너그럽게 벼이삭이 숙여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또 무슨 표창장을 주면은, "뭐 잘했다고 상장 줍니까?" 이러고, 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 뭐 스님네들이 날 뭘 주느냐 이거야. 그러곤 그 자리에서 박박 찢어 버리는 그런 행태. 그러니깐 몹시 나빴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그런 과정 없이 어떻게 벼이삭이 첫 번부터 익을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저게 바로 내 모습이야!', '저게 바로 나야!' 이렇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안 해 보고 그렇게 겪어 보지 않았더라면…. 그분들이 다 스승이야, 내 밑거름이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 줬지. 안 받아 줬어도 거름이요, 받아 줬어도 거름이에요.

어떤 한 큰스님은 너무 너그럽게 날 받아 주시고 불쌍히 생각해 주시고, 아주 나이 어리다고 그냥 남몰래 아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욕을 합니다. 저 노장은 저 하치않은 애한테 저런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누룽갱이 한 조각이라도 몰래 주느라고, 세상에! 이 마음밖에 더 무서운 게 없어요, (주먹을 쥐어 보이시면서) 마음! 아무리 거대하고 잘나도 그런 마음을 나눌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죽으나 사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랬던 고로 그 분들은 죽지 않았다고 봅니다. 또 여러분은 앞으로 죽는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도, 사람이 진화돼서 다시 모습을 바꿔 가지고 나올 뿐이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의 차원이 바로 내일의 차원이요, 또 내일이 오늘입니다. 오늘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참자기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한테 머리 숙여 숭배해야 해요.
자기 조상이니까. 자기 아비라고요.

※위 법문은 1987년 2월 15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NDYouTube G 검색창에
대통인을 치세요!
인터넷동영상강좌 평생교육원 대통인.com
온라인 인터넷 동영상강의보기 사이트
수강상담 전화
1661-6551
(24시간 접수중)

인터넷 동영상 수강 과목

명리학	구성학	기문둔갑
매화역수	천문지리풍수	수상
육효	육임	주역
타로	물상명리	풍수지리
성명학	수맥	팔체질
꿈해몽	생활풍수	사자소학

-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공부해서 좋다.
- 역학의 모든 과목을 실력있는 강사에게 배운다.
- 누구나 저비용으로 반복하며 전 과목을 공부한다.
- 누구나 공부하면 빠른시일내 사업에 나설 수 있다.

NDYouTube G 검색창에
대통인학술원을 치세요!
오프라인강좌수강! 전국공개강의 알리미 사이트 대통인학술원.com
오프라인 인터넷 공개강의보기 사이트 (자격증 취득과정)
(24시간 접수 중)
수강상담 전화
1833-9551

현재 오프라인 수강생모집 과목

과 목	강사명	개강일	수강시간	강의시간	월수강료	비 고
구 성 학	박창원	3월13일(화)	14-17시	3개월	20만원	교재제공
자연물상 사주명리	지정도	3월14일(수)	13-15시 16-18시	3개월	15만원	교재제공
유니버셜 타 로	차두성	3월14일(수)	10-12시 14-16시	3개월	15만원	교재제공
주 역 점	장호철	3월15일(목)	14-16시 19-21시	3개월	15만원	교재제공
		3월18일(일)	12-14시			
마르세유 정통타로	조미정	3월16일(금)	14-16시 17-19시	2개월	20만원	교재제공

-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대통인학술원을 치시고 들어가셔서 공개강의 공지를 자세히 보세요.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22번지 흥도빌딩 3층 301호 (지하철 2. 5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 30m) (자가용 → 영등포구 구의회옆 당산공영주차장 이용)

만트라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만트라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